

두루미와 나 (2025)

홍영인

나는 예술가다. 그것이 진정으로 내 선택이었을까? 예술가와 샤먼이 되는 것 간에는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는데, 두 직업의 선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마음과 생각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와 직관의 결과물들을 이 세상에서 보고자 하는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갈망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욕구 또한 절실하다. 예술가로서 나는 끊임없이, 어쩌면 필연적으로 여행길에 오르
고, 그 어디에서도 집이라고 느끼지 못한다. 이번에는 한국의 비무장지대라는 경계 지역에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이들이 목격할 수 있는 전시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
다.

나는 두루미들이 이곳에 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안다. 신성한 것의 탄생은 언제나 필멸의 위험과 연결되어야 하는 걸까? 두루미들이 추는 우아하고 사뭇한 춤에 매료된 것은 나뿐만이 아니다. 아치볼드 박사는 한국 비무장지대의 두루미를 연구하러 오기 위해 설사 그가 죽거나 붙잡히더라도 유엔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는 계약을 맺어야 했다. 두루미에는 어떤 자석 같은 힘이 있다. 인간의 고독 속에서는 언어나 심지어 예술조차도 우리의 내면세계가 가진 그 풍부함과 아름다움, 기쁨과 슬픔을 온전히 담아내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두루미의 춤에는 흠이 없다. 각각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그들의 내면적 존재가 드러나는 형상이며, 내면과 외면적 존재의 온전한 합일이라는 바로 이 지점이 두루미의 춤을 신성하게 만든다. 두루미의 힘은 언어가 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성스러운	위험	위험	성스러운	성스러운
성스러운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성스러운.....

우리는 하나의 무리, 두루미족으로 나아간다. 굶주림, 추위, 위험보다 강한 것은 우리의 갈망이다. 우리를 떠오르게 하는 뜨거운 기류와 우리를 끌어당기는 석원의 이미지는 우리의 일부다.

우리 두루미는 깃털, 근육, 피부로 생각하고 표현하며 몸의 언어를 이용해 소통한다. 생각하고, 움직이고, 말하는 것은 하나다. 우리의 특별한 해부학적 구조는 다른 어떤 종라도 구별되는 자세를 가능케 한다.

우리 종은 앞것의 몸집이 더 작지만, 앞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우리는 평등을

소중하게 여긴다. 우리 안에서 경쟁이 있되 의견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집단적인 몹이기 때문이다. 집단의 정신이 우리 가족의 삶을 이끈다.

이 계곡을 가로지르는 모든 이들은
하나의 대형으로 모여 떠난다.
여기서는 다수와 소수가
하나로 합쳐지고 녹아든다.

다수가 하나로 영원히 합쳐질 때,
그 하나는 완벽함으로 가득 찬다.

이곳은 획일성의 장소가 아니다.
다양성 속에서 합일을 발견하는 곳이다.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철원에서 두루미를 처음 만난 이후, 깨어 있는 일상에서는 아닐지라도, 꿈속에서 가끔 내가 두루미가 된 상상을 하게 되었다. 아치볼드 박사의 말마따나 두루미에 대한 열정에는 ‘전염성’이 있어서 나는 두루미를 만난 이래 그에 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두루미를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새들이 나누는 소통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다. 내가 사는 지역에는 항구가 있어 갈매기와 비둘기가 많고, 산비둘기를 농장 가까이나 울타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정원이나 숲에 가면 참새, 까치, 되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을 때마다 그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해졌다. 다른 새들의 소리를 들으며 두루미와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든다. 두루미가 그렇다.

인간이 여러 인격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하나일 수 있다면, 여러 인간이 겹으로는 나뉜 것처럼 보이는 존재에 걸쳐 하나로 존재할 수 있을까? 그 하나는 다른 종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 두루미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우리의 일부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다른 환경에서 살

시작은 소실되었다
끝은 영원을 향해 뻗어간다.

.....

모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진정 모든 것이다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는 이 땅을 위아래로, 양옆으로 가로질러 날아왔다. 그 기억은 우리 안에 살아 숨 쉬며 노래하고 있다. 우리는 축독한 환경과 항공기, 전깃줄, 총탄 등에 형제자매를 잃었다. 인간의 산업화, 농업, 어업, 광산 채굴, 댐목은 우리의 뉘터르 위협했다. 하지만 우리의 갈망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우리의 몫을 움직이게 한다. 우리 중 운이 좋은 이들은 평생을 함께할 짝과 인연을 맺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 되어 날듯이, 하나 되어 춤을 춘다. 아직은 우리가 도착하면 아직은 인간이 남겨둔 곡식이 있겠 지만, 이 보 호구역이 얼마나 오랜 시간 평화롭고 안전하게 남아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들은 수년간 여행했고,
사막과 산을 건넜다.
위대한 시무르그를 향해서
한평생 여정에 올랐다.

.....

어떤 이는 바다에 빠져 죽었고
어떤 이는 그저 사라지고 말았다.
어떤 이는 높은 산꼭대기에서
갈증에 굴복했고
어떤 이는 부상과 더위 앞에 쓰러졌다.
어떤 이는 날개가 태양에 그을렸고,
어떤 이들은 심장이 열기에 타버렸다.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쿠르륵,

우리의 큰 몫체는 강인하다. 우리는 여우나 독수리의 위협 앞에서 자식들을 지킨다. 우리 조상에게 진정한 위협이 되어왔던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다. 우리는 큰 무리를 지어 쉬며, 공격을 받으면 언제든지 날아올라 다른 뉘터르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

비무장지대에서 우리는 고라니와 친하다. 그들은 높이 뛰거나 빨리 달리며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지만, 우리가 쉬고 있을 때면 경고 방해하는 법이 없고, 오히려 우리를 반긴다. 고라니는 겨울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우리 두루미족은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도 일본도 아닌, 오직 이곳 청원에서만 이 특이하고 흥미로운 친구들을 만난다. 이곳이 안전하다는 신호다. 우리 모두 비무장지대가 인간의 간섭이 제한된 안식처라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시설을 짓고 확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은 우리를 괴롭힌다.

두루미를 관찰하는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경험 속에 침잠해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서사와 과거의 무게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 있기도 하다. 두루미는 우리를 현재로 이끌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는 많은 예술가와 장인들이 두루미를 그려왔다. 어쩌면 이를 통해 나와 두루미가 더 가까이 연결될지도 모르기에 나 역시도 그들을 그려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두루미는 현자, 문인, 음악인들의 귀한 벗이었다. 그들이 추는 우아한 춤은 한국 전통무용에서도 종종 모방되어 왔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기적이자 진정한 의례다. 아직 자연 세계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일부 인간 집단에는 이런 의례가 남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본질이 담기지 않은 말, 그저 소통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의 원자화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렇기에 나는 두루미 소리가 듣고 싶은 것이다. 대체되지 않는 직접적 말들로 내면을 채우고 싶다. 경계들을 지워낼 진정한 표현, 그 가능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네가 알아 왔던 모든 것,
네가 보아왔던 모든 것은
환상이었다, 모두가.
네가 말하고 들었던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아니었다.
네가 가로질렀던 골짜기도
내 안에 있었고
네가 보여준 그 용기 또한
내 것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그대였던 것처럼 땅에 내려앉을 것이고, 대지는 우리를 받아줄 것이며, 공기는 날개를 지지하며 우리의 착지를 도울 것이다. 기쁨과 축복은 그 자체로 보상이고, 우리가 본래 되어야 할 존재, 즉 하나의 무리, 하나의 국가로 살아가는 것 또한 그 자체로 보상이다. 두루미의 나라란 이 땅은 광활하여 대지를 하늘 모두를 아우르며, 우리의 땀짓으로 하늘과 땅을 하나로 잇는다.

ㄷ루룻, ㄷ루룻, ㄷ루룻,
 ㄷ루룻, ㄷ루룻, ㄷ루룻, ㄷ루룻, ㄷ루룻, ㄷ루룻, ㄷ루룻, ㄷ루룻,
 ㄷ루룻,..... ㄷ루룻, ㄷ루룻, ㄷ루룻, ㄷ루룻, ㄷ루룻, ㄷ루룻,.....

[illegible]

예술가로서 나는 나만의 목적, 나만의 향로를 만들어야 한다. 나는 이 예술가로서의 여정이 내면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땅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것이길 바란다. 두루미의 춤처럼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인간 역시도 언어의 한계를 깨고 분리된 감각을 넘어 하나가 되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에의 여정이길 바란다.

피터 마티센은 『천상의 새』라는 책에서 비무장지대를 가리켜 두루미를 위한 “우연한 낙원”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치볼드 박사와 함께 이곳을 여행하며 비무장지대가 두루미와 재두루미에게 이상적인 서식지임을 발견했다. 또한 한국의 정치적 맥락과 급속한 경제적 성장이 이 성스러운 새들과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모순적 관계를 가지는지도 관찰했다. 매년 두루미들은 다 자란 어린 새들과 함께 이 우연한 낙원을 찾는다. 그러나 이 장소가 지닌 딜레마의 무거운 긴장감과 역사적, 정치적 무게는 결코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듯 싶다.

인간	없는	인간	없는	인간	없는	인간	없는	인간	없는	인간	없는
보				금				자			리
인간	없는	인간	없는	인간	없는	인간	없는	인간	없는	인간	없는
보				금				자			리

내가 만일 이렇듯 보호된 땅에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5,000킬로미터, 어쩌면 그보다 더 먼 거리도 기꺼이 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곳은 인간이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두루미가 머무는 이 찰나의 은혜로운 순간이다.

야쿠즈족은 두루미를 보면 고난과 불행이 사라진다고 믿는다. 오직 그들의 샤먼들만이 두루미로 변해서 천상과 지하 세계를 오가며 미래를 예언하는 힘을 키워왔다. 나는 두루미가 되어 내가 볼 수 없는 여러 세계를 가로지르는 꿈을 꾀다.

그들은 정신없이 이성을 잃고 생각에 잠겨,
아무것도 헤아릴 수 없었다.
절대적인 무의 상태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없이 존경하는 이(시무르그)에게 간구했다
거대한 비밀을 드러내고, 그들을
정체성의 혼동을 해방시켜 달라고 —
당신과 우리, 우리와 당신.

당신 우리 당신 우리 당신당신 우리 우리 당신 우리 당신 우리
...

참고문헌 및 인용문:

피터 마티센, 『천상의 새: 두루미와의 여행』

조지 아치볼드: 『두루미와 함께한 삶』

아타르, 『새들의 회의』

Special thanks to:

올레 하겐